넉넉한 마음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다



눈 맑은 낙타를 만났다 함진원 지음 푸른사상판사

함진원 시인이 67편의 시를 엮은 시집 '눈 맑은 낙타를 만났다'를 펴냈다.

시인이 바라보는 것은 항아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진실과 정의를 추 구하는 공동체 사회다.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 돼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에 허우적거리는 도 시인들의 삶을 직시하고 그 대안으로 두레밥 문화를 제시했다.

두레밥은 두레로 일을 하고 공동으로 먹는 밥이다. 두레꾼들은 일터로 가져온 점심뿐 만 아니라 오전 참과 오후 참 등을 먹는데, 자 욕망 탐욕 도시인 직시 두레밥 문화 대안 제시 유대감의 필요성 주목

신의 집에서 평소에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 식을 맛볼 수 있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가져, 힘든 농사일을 함께해 나가고 상부상조의 토 대를 마련한다. 노동력이 없는 마을의 노약 자나 과부의 농사를 지어주거나, 마을 사람 들의 대소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기도

이러한 두레밥 문화는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인의 토지를 사유제로 만들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영 신분의 조선 농민들이 소작인으로

내몰리면서 두레밥을 나누는 토대가 상실된 것이다. 해방 뒤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 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와 두레밥 문화는 고전적인 유물이 됐 다. 그렇지만 두레밥 문화가 완전하게 소멸 된 것은 아니다. 그 형태는 바뀌었지만, 현 재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함진원 시인은 두레밥 문화를 재발견, 이를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항아리처럼 넉넉한 사람들과 보리밥 먹는 것"(증심사에서)과 공원 어귀에 밥차가 들어 와 밥 냄새를 풍기자 구름처럼 사람들 모여드 는 때를 "은빛으로 찰랑거리는 시간"(은혜로 움이여)으로 여기는 장면이 바로 그렇다. 아 랫마을 감목리댁이 건조한 일상에 수제비 쑤 는 날을 "온 동네 까치 떼 함께하는 잔칫날" (오후 한때)로 연기는 것도, 아주 추운 날이었 지만 "따순 밥 먹자고 손잡아주는 마음 있었기에 환한 모란꽃을 기다릴 수 있었다" (그 겨울)고 고마워하는 것도 그렇다. 나아가 광주 사람들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을 믿고 정의롭게 맑고 진실하게 견디는 마음을 "주먹밥마음" (그날, 도청에서)으로 인식한 것에서도 두레밥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맹문재 문학평론가(안양대 교수)는 작품 해설에서 "인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부단하게 어울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며 그 공동체적 유대감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설명했다.

함평 출신인 함 시인은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시 '그해 여름의 사투리 調(조)' 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 로 '인적 드문 숲길은 시작되었네', '푸성귀 한 잎 집으로 가고 있다', 연구서로 '김현승 시의 이미지 연구'가 있다. 기린독서문화교육 원을 설립하고 기린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치유 글쓰기와 책 읽기 독서 모임을 하는 등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 작가회의 회원이다. /최진화 기자

세책 니왔어요

◇제주의무덤=포토에 세이집. 사진가김종범이 제주도의 무덤을 소재로 사진을찍고, 문학평론가 조용훈이 그 무덤을 지상 에 새긴 별이라는 소재로 글을썼다. 세계문화유산



제주의무덤

에 등재되어도 손색없는 제주의 무덤을 김종범 사진가는 지난 4년간 제주도를 수시로 드나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론 촬영으로 작업을 진 행해 왔다. 생존의 터전인 논이나 밭 주변에서 공 간을 확보하고 이승의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사 진 속 무덤은 현실과는 무관하다는 듯 전혀 다른 세상을 펼쳐 보인다. 몽트.

◇언니, 우리 통영 가요=개 인적이고도 보편적인 사람 이 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내면서 도 서늘한 위트를 잃지 않는 조명희 시인의 매력적인 시집 이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유머러스한 태도와 예리한 시



선으로 자신이 지나온 생애를 훑는다. 우리가 벼 랑에서 무참히 밀어 버렸던 수많은 얼굴을 마주 보는 '흑백사진' 같은 한 시인의 사원을 만날 수 있다. 걷는사람.

◇가짜 뉴스=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가짜 뉴스 가 쏟아져 나오는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진짜 뉴스를 판별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 가짜 뉴스란 무엇이고,



왜 만들어지는지,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왜 믿는지, 진짜 뉴스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만화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울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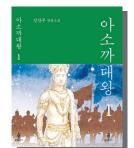
◇할아버지의 양손=6 ·25 전쟁 당시 평양에서 부산까지 피란길에 올랐 던 윤중식·윤대경 부자 의 실제 경험담이 담긴 그림책. 한국 서양화 2 세대 작가이자 '석양의



화가'로 불리던 윤중식 화백이 남긴 피란 현장 스케치 28장에 아들 윤대경씨가 글을 붙였다. 윤화백이 남긴 스케치에는 포탄에 허둥이다 생이별한 가족, 먹을 것이 없어 죽한 그릇에 애걸하는 사람들 등 피란민의 고통이 생생하게 남았다. 상수리.

010-3613-6114 010-6646-1241 010-8181-2627 010-4624-8409 010-3621-8989 010-3600-0500 010-8666-2882 010-3666-1300 010-5619-7020 010-3624-4777 010-4627-1472 010-5259-6441

철권에서 붓다 가르침으로 전환한 통치가



아소까대왕 정찬주 지음 불광출판사

인도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불교 확산에 공 헌한 아소카왕의 일대기를 담은 장편소설 '아 소까대왕' 1~3권(불광출판사)이 출간됐다.

기원전 4~2세기 고대 인도를 지배한 최초의 통일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지배자 아소카왕이 주된 통치 수단을 무력에서 '담 마' (Dhamma, 붓다의 가르침·법)로 전환하 는 과정 등에 주목한 작품이다.

법정스님의 재가 제자로 불교 관련 소설과 산문집을 여럿 출간한 정찬주 작가(70)가 역 사적 사실과 상상력을 버무려 아소카왕의 삶 을 재구성했다.

아소키는 이복형제 왕자 99명을 직간접적으로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며 반대파 신하수 백명을 숙청한 '피의 군주' 였다.

그는 칼링가를 정복해 조부이자 마우리아 왕조의 시조인 찬드라굽타 시절부터 이어진 제국 건설의 꿈을 이뤘다.

불교 확산 공헌 아소카왕 일대기 역사적 사실 상상력 버무려 구성

하지만 이후에는 칼을 앞세우는 대신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이른바 담마 통치로 전환한다. 철권 통치자였던 아소카왕이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극적으로 탈바꿈한 것이 소설의 모티프가 됐다.

정 작가는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생명이 경 시되고 평화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 개인 이나 국가의 이기주의로 공존을 파괴하는 시 대"라고 현대사회를 진단하고서 아소카의 통 치 철학이 "21세기 사상의 대안도 될 수 있겠 다고 생각했다"고 집필 동기를 전했다.

1995년 2월 후배와 함께한 한 달간의 배낭 여행이 정 작가와 인도의 첫 만남이었다. 작품 을 구상한 이후 15차례에 걸쳐 통산 250여 일 간 인도에 머물렀다고 한다.

불교 신자로서의 애정도 감추지 않았다.

정 작가는 "아소까왕이 세상에 출연하지 않 았다면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한 채 인도에서 소멸했을지도 모른다"며 "정법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세계로 펼친 전륜성왕이 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작가의 말'에 서 찬사를 보냈다. /연합뉴스

디지털이 환경에 무해할 것이라는 착각



'좋아요' 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기욤 피트롱 지음 갈라파고스

요즘 학생들은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에 익숙하다. 정부도, 회사도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를 활용한 지 오래됐다. 개인들은 손바닥 만 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대부분의 정보를 얻 는다. 종이 없는 세상, 곧 벌목이 크게 줄어들 어 울창한 숲이 지구를 보호해주는 세상이 머 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 자인 기욤 피트롱은 신간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에서 이 같은 디지털 전환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 각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단언한다.

에스토니아 사례는 이런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에스토니아는 행정 업무의 99%를 디지털로 처리함으로써 "매달 에펠탑 몇 개를 쌓은 높이만큼의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대체해자원을 절약한다. 그러나 전자 문서를 데이터

기존 통념 깨는 문제의식 제기

베이스에 계속해서 저장해두기 위해서는 막 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자연 보호라 는 미명 하에 더 큰 자연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는 이런 역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저자는 이를 밝혀내고자 프랑스의 해변부터 북극까지 정보통신기술의 발자취를 따라 전 세계를 탐사한다. SNS에서 사람들이 누르는 '좋아요'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모뎀과 안테나, 케이블과데이터센터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가 동원된다. 무형의 디지털 행위는 가상현실에 기반하기에 '탈물질화' 되었다고 여겨지지만 실상 우리가 믿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물질적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엄청난 양의 환경 오염 도 부추긴다. 현재 에너지 생산 구조가 화력 발전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는 항상 더 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이고, 케이블은 점점 더 팽창할 것이며 데이터센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역량을 자랑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질 것"이라고우려했다. /연합뉴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

<u>⋒</u> 전남매일 -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